

보도자료 | Press Release | 2010. 6. 4. 12:00

# 한기창 HAN Kichang

## *Bona fide Bonding*

2010. 6. 9 ~ 7. 11

Vernissage | 2010. 6. 9 pm 5:00

학고재 갤러리 신관

Hakgojae Gallery Space 2

- . X-ray 필름을 사용하여 한국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한기창의 개인전
- . 치유의 의식, *Memento mori*
- . 낙원을 향해 확장된 공간
- . 셋김으로 죽음을 넘다

#### 목차 Contents

- I 전시개요
- II 전시주제
- III 전시내용 및 작품
- IV 전시 관련 자료
  - 1. 작가 약력
  - 2. 전시 서문
    - 최태만, 린트겐의 정원으로부터 풍경으로

담당 학고재갤러리 맹정환, 성가영

(02-739-4937-8 / 010-5319-6889)

보도자료 및 이미지는

학고재 웹하드

“1007 한기창展”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ebhard.co.kr

ID : hakgojaeart

PW: guest

## I. 전시개요

제 목 : 한기창 개인전 "Bona Fide Bonding"  
일 시 : 2010년 6월 9일 ~ 7월 11일 (32일간)  
장 소 : 학고재갤러리 신관 (서울 종로구 소격동 77) T: 739-4937~8  
출품작 : X-ray 필름을 통하여 재구성한 꽃과 동물, 산수화 20여점

## II. 전시주제

- X-ray 필름을 사용하여 한국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한기창의 개인전
- 치유의 의식,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 낙원을 향해 확장된 공간
- 씻김으로 죽음을 넘다

## III. 전시내용 및 작품

### X-ray 필름을 사용하여 한국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한기창의 개인전

X-ray 필름을 사용하여 한국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한기창의 개인전이 2010년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학고재 갤러리 신관에서 열린다. 2007년 학고재에서의 개인전 “혼성의 풍경”이후 3년만이다. 수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는 죽음에 대한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X-ray 필름이 회화적으로 환원되는 작업을 통해 가시화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의 식물과 도시 위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산수, 동물의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 치유의 의식,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

한기창의 작품은 식물의 꽃과 잎 같은 자연의 이미지들이지만 이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안의 내용물이 인간의 뼈를 찍은 X-ray 필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순간 그것은 아름다움을 떠나 기괴함, 혹은 공포감을 전한다. 꽃과 식물의 형상을 이룬 인간의 신체골격은 포근하고 따뜻하며 충만한 생명력을 보여주지만, X-ray 필름의 차갑고 건조한 물성이 드리우는 죽음의 그림자는 한기창의 작업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음을 말한다. 끔찍한 교통사고 후 죽음의 직전까지 경험한 한기창은 추상적 관념이나 고상한 논리에 바탕을 둔 작품보다 자신이 겪은 고통의 시간이 던져준 질문에 대한 진솔한 성찰이 필요함을 느낀 것이다.

사형선고를 당한 그에게 X-ray필름은 죽음의 공포와 처절한 고통의 상징이었고 사형집행을 앞둔 사형수의 초조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었다. 이런 X-ray필름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화하는 **찰나의 극적 경험은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초월하게 했다.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자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순환의 고리 안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윤희의 세계관**을 자각한 것이다.

한기창에게 있어 X-ray필름을 이용한 작업은 죽음과 공포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다. X-ray필름 조각을 조합하여 유기체를 재구성하거나, 캔버스 표면을 붕대로 감싼 다음 그 표면을 스테이플로 마감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행위를 연상시키는 작업이다. **치유를 위한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겪은 신체적 고통과 상처에 대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차가운 X-ray필름을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이용하여 생명체로 승화시키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생과 사의 극적인 전환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낙원을 향해 확장된 공간

한기창의 작업은 확장, 진화하고 있다. 2007년의 개인전에서 그는 LED의 화려한 원색을 동원한 작품들로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밀려나는 대신 혼성적인 가상의 정원이 전면적으로 부상하여 모조성이 두드러진 화면을 만들었다. 그리고 2010년 이번 개인전에서는 **관심영역이 산수로 확대되면서 모조된 혼성의 공간을 대경산수로 형상화**하고 있다.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 산과 산이 이어지며 계곡으로 폭포가 흘러내리는 **풍경은 실경이면서 동시에 관념적인 산수다.** 이번 작품들에서는 X-ray필름의 정체, 인체의 형상이 점차 희미해지는 대신 **또 다른 낙원의 이미지가 화면 위로 부상한다.** 이는 **모든 고통과 번뇌를 초월한 무심하고 관념적인 자연의 이미지**이다.

## 씻김으로 죽음을 넘다.

한기창의 산수화는 **죽음과 고통의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된 관념적 낙원,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만나는 세상**이다. 작가는 산수화의 농담표현을 위해 X-ray 필름을 잘게 쪼개고 이미지를 지웠다. 그 결과, 뼈마디가 노출된 죽음의 꽃을 통해 드러냈던 아름다운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도 사라졌다. 한기창의 **이전 작업이 고통에 대한 치유였다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일련의 작업은 씻김굿을 통해 고통을 벗어던지려는 해소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씻김을 통해 X-ray필름이 해체되고 뭉개져 그 특질마저 알아볼 수 없는 모습, 그것은 작가가 **윤희라는 삶의 고리를 뛰어넘어 고차원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라우마에서 해방된 한기창의 또 다른 세계를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na Fide Bonding**

2010

X-ray Film, LED RGB program, Plexible Glass

120×160cm



**Bona Fide Bonding**

2010

X-ray Film, LED RGB program, Plexible Glass

160×120cm





**Bona Fide Bonding**  
 2010  
 X-ray Film, Acrylic, LED Light box  
 600×146cm, 3pcs



**Bona Fide Bonding**  
 2010  
 X-ray Film, Acrylic on Canvas  
 160×160cm



**Bona Fide Bonding**  
 2010  
 X-ray Film, Acrylic on Canvas  
 200×200cm



**Bona Fide Bonding**  
 2010  
 X-ray Film, Acrylic on Canvas  
 120×180cm



**Bona Fide Bonding**

2010

X-ray Film, LED RGB program, Plexible Glass

116,5×800cm, 4pcs



**Bona Fide Bonding**

2010

X-ray Film, LED RGB program, Plexible Glass

196,5×160cm, 2pcs

## IV. 전시 관련 자료

### 1. 작가 약력

- 2006 단국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 박사 수료
- 2000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93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주요 개인전

- 2010 학교재, 서울
- 2007 학교재, 서울 / 카이스트갤러리, 서울
- 2006 가나보부르 Gana-Beaubourg Gallery, 프랑스, 파리
- 2005 Cite Internationale Des Art Gallery, 프랑스, 파리
- 2004 갤러리세줄, 서울 / 헤이리 커뮤니티하우스/ 파주
- 2003 갤러리현대 Window Gallery, 서울 / 금호미술관, 서울
- 2002 창동미술스튜디오, 서울
- 2001 토탈미술관, 장흥
- 1999 아르코미술관, 서울
- 1998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 갤러리21, 서울 / 웅진갤러리, 서울
- 1997 모인갤러리, 서울, 공평아트센터, 서울
- 1996 도울갤러리, 서울 / 한진프라자 갤러리, 서울
- 1995 서경갤러리, 서울

#### 주요 단체전 및 기획 초대전

- 2010 REMIND - 영은미술관 10주년 기념전, 영은미술관, 광주  
Seoul Open Art Fair, 컬처노믹스, 예화랑, 코엑스  
The more, the better 선화랑 33주년 기념전, 선화랑, 서울  
이이남, 한기창 2인전, 인천국제공항 VIP 탑승동라운지
- 2009 금호미술관 개관20주년 기념전, 금호미술관, 서울  
Art ASIA 09, 마이애미 국제 아트 페어, 마이애미, 미국  
Art Dubai 09, 두바이 국제아트페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Antipodes, 이영미술관 (용인)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정지(舊 기무사터), 서울  
우리들의 초상 - 삶의 표정, 시대의 표정, 가나아트센터, 서울  
환태평양의 눈 - 제주도립미술관 국제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가나아트센터 25주년기념 THE BRIDGE, 가나아트센터, 서울  
화음 - 유아트스페이스 개관 6주년 기념,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과거로부터의 메시지 : 전통에 대한 현대미술의 사유, 그림순갤러리, 서울  
Korean Eye 2009 Moon Generation,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자연 - 스러움, 성곡미술관, 서울  
Art Furniture, NefSpace, 서울  
신화조도, 인터알리아, 서울  
행복한 동행, 갤러리더케이, 서울  
한국 현대회화의 빛 - 우림 35주년 개관전, 우림화랑, 서울  
New Generation of New Space, 금호미술관 Kring, 서울  
Chocolate Box, 장흥아트파크 미술관, 장흥
- 2008 블루 닷 아시아(Blue Dot Asia 2008), 예술의 전당, 서울  
MEME TRACKERS 초대전, 송장미술관, 베이징, 중국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 작품의 재구성, 경기도미술관, 안산  
정원 -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전남문화회관, 여수

- 지구의 빛, 국립과천과학관, 과천
- 학교재 소장전, 학교재, 서울
- 양평프로젝트 - 연기된 구름, 마나스 아트센터, 양평
- 천 송이 꽃을 피우자(가나아트센터에 입주작가 보고전), 인시아트센터, 서울
- 근.현대미술의 흐름 - 시정중경, 알바로시자움, 안양
- 빛으로 빛은 그림, 장흥아트파크, 장흥
- 월간조선 '평론가선정 현대작가 55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Up To The Minute, 코리아아트센터, 부산
- Now Landscape, 인시아트센터, 서울
- Leaving The Brush, 두산 위브더제니스아트 갤러리, 부산
- The Story, 이복화랑, 서울

- 2007 한국 컨템퍼러리 작가 40인, 인시아트센터, 서울  
박물관에 꽃이 피는 날, 복촌미술관, 서울 / 국립공주박물관, 공주  
거울보기 Visual Reflection, 아트파크, 서울  
즐거운 배신, 리즈갤러리, 양평  
꽃을 피우다 - 아람미술관 개관 기념전, 아람미술관, 고양  
공통경계 -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대표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The blooming tale, 갤러리유진, 서울  
이음길 - 경기도미술관 컬렉션50, 경기도미술관, 안산  
도탈. 아트. 세트., MBC갤러리, 대구  
Living Art Room, 롯데백화점 부산점, 부산

- 2006 과학+예술전, 국립중앙과학관, 서울 / 사비나미술관, 서울  
미디어아트 안산2006, 단원전시관, 안산  
'Brand New' 유진갤러리 개관기념전, 유진갤러리, 서울  
가나아트센터, 장흥아트파크 오픈스튜디오, 장흥아트센터에, 장흥  
헤이리관페스티벌2006, 헤이리아트벨리, 파주  
세계 빛 엑스포 설치미술, 심양, 중국  
쌈지아트마트, 갤러리잡지, 서울  
신세계 아트페어 PURPLE CAKE, 신세계백화점 본점, 서울  
Cutting Edge, 서울옥션, 서울  
개관기념전 '미술 - 꽃을 피우다', 갤러리인안, 대전  
시와 그림 - 꽃피우다, 인시아트센터, 서울  
역사와 의식 - 독도전쟁, 서울옥션, 고양 킨텍스, 대구, 청원 등 순회전

- 2005 길-포천아시아미술제, 반월아트홀, 포천  
시간을 넘어선 울림 - 전통과 현대, 이화여대박물관, 서울  
서울 미디어시티 국제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미술과 놀이 '핀스터즈', 예술의전당, 서울  
장면들 'SCENES',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지킬북 놀이미술관, 금호미술관, 서울  
영은레지던시 2005, 영은미술관, 광주  
고려대학교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현대미술 소장품',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올해의 한국현대미술', 광화문갤러리, 서울  
'목공' 유근박빙춘한기창박영대 동양화 5인 초대전, 경기도박물관, 용인  
월간미술 기획 동양화 '긴춘문', 금호미술관, 서울  
세계 빛 엑스포 설치미술, SBS, 서울  
Flower Flows Flowery, 아티뉴스갤러리, 서울  
생활의 발견 Re-Creative Artwork, 헤이리아트팩토리(파주)  
삼성테스코 개관기념전 '식물도감', 삼성테스코  
과학 · 놀이 · 체험, Bexco(부산)

- 2004 FLOWERS BIRDS, 가나아트센터, 서울  
금호미술관 15주년기념 '시선의 확장과 공존', 금호미술관, 서울  
북화술사의 인형들, 단원전시관, 안산
- 2003 아트스펙트럼 2003, 삼성미술관, 서울  
유쾌한 공작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헤이리페스티벌 2003, 헤이리아트벨리, 파주  
꿈꾸는 오브제, 금호미술관, 서울  
평론가 선정 - '한국미술의 몽타쥬', 고양 꽃 박물관, 고양  
창동미술 스튜디오 1기 오픈스튜디오, 창동미술 스튜디오, 서울
- 2002 한·일 청년작가전, 한국문화원, 도쿄, 일본  
현대미술 아트페어, 센트럴시티밀레니엄, 서울  
창동미술 스튜디오 개관기념전, 창동미술 스튜디오, 서울
- 2001 '한국미술 정과동의 미학', 갤러리라메르, 서울  
세계 도자기 엑스포 기념전, 이천 야외 전시장, 이천
- 2000 한국화 새 천년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청담미술제, 조선화랑, 서울
- 1999 세계 한민족 작가100인전, 세종문화회관미술관, 서울  
프레스코 그 천년의 미학, 성곡미술관, 서울
- 1998 한국 현대미술 100인 초대전, S갤러리
- 1997 영국 대영박물관 기념미술제, Logos 갤러리, 런던, 영국
- 1996 올해의 한국미술선 선정작가전, 아르코미술관, 서울

#### 국내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수상경력

- 2008 가나2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가나아트센터 장흥 아트파크
- 2006 가나1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가나아트센터 장흥 아트파크
- 2005 파리 CITE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삼성문화재단 · 삼성미술관 리움, 프랑스
- 2004 영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영은미술관 경안창작스튜디오
- 2003 창동 미술스튜디오1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 2004 한국문예진흥기금 개인전 전시지원 선정,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2001 구상전 대상, 국립현대미술관

#### 작품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민속박물관 / 경기도미술관 / 대전엑스포 첨단과학관  
양주시 덕계공원 / 연세대학교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 이영미술관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 고려대학교 박물관 / 삼성미술관 리움  
가나아트센터 / 금호미술관 / 영은미술관 / 성곡미술관 / 사비나미술관  
하나은행본점 / 헤이리 아트벨리 / 장흥아트파크 / 김달진미술연구소

## 2. 전시 서문

### 뢴트겐의 정원에서부터 풍경으로

최태만 미술비평가, 국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한기창은 한동안 엑스선 필름을 이용해 꽃과 풀이 어우러진 정원과 숲을 표현하였다. 그의 작업이 특이하게 비쳐졌던 것은 이 엑스선 필름에 기록된 손과 발을 구성하는 뼈마디가 작품 속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기 때문이다. 고속의 전자가 장벽에 부딪칠 때 발생하는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이용한 엑스선촬영은 물질을 투과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공업자재의 검사, 미술품의 감정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독일의 실험 물리학자 뢰트겐(Wilhelm Konrad Röntgen)이 음극선을 연구하다 1895년 이 미지의 선을 발견하였으나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실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엑스(X)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엑스선은 오늘날 의학에서 피부나 근육조직을 투과하여 인체를 지탱하고 있는 뼈의 탈골, 파손, 봉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가 삐끗하거나 인체가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심지어 치아교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외상의 관찰은 물론 엑스선촬영을 통해 뼈의 파손여부를 진단하기 때문에 엑스선 필름이 낯설거나 신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병원의 방사선과 차트 속에 들어있어야 할 필름이 한기창의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새롭게 보인다. 더욱이 필름을 잘라 재조립하였으나 내부에서 조명을 비추으로써 척추나 갈비뼈의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작품을 보노라면 부드러운 식물이 인체처럼 단단한 물질의 골조를 지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이런 작품을 모아 그는 '뢴트겐의 정원'이란 은유적이면서 의미심장한 제목을 붙인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한기창이 엑스선 필름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 것은 10여년 전에 겪은 끔찍한 경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던 그는 재학 중에 기본적으로 지필묵(紙筆墨)으로 제한된 재료기법에 답답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림 그리는 일에 바쳐야겠다는 뚜렷한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다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관련 업체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 종사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도교수와 상의한 결과 유학을 권유받았다.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유학이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돌파구이자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유학을 준비하던 중 그는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눈길에서 두 대의 차량이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그는 일곱 차례의 대수술을 받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결과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다리를 자르지는 않았으나 그는 일년 반을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병원에서 몸에 박힌 핀을 제거하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엑스선필름을 발견한 그는 불현듯 저것으로 작업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죽을 직전까지 경험한 그로서는 추상적인 관념이나 고상한 논리에 바탕을 둔 작품보다 자신이 겪은 고통의 시간이 던져준 질문에 대해 한번쯤 진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했던 것이다. 재활치료 후 그가 진단방사선과에 엑스선필름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병원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이 왜 필름으로 작업하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를 진지하게 밝히고 설득하여 필름을 입수한 그는 엑스선필름과 LED라이트박스를 이용한 작품들로 2003년 금호미술관에서 '뢴트겐의 정원'이란 제목의 개인전을 열었다. 그것은 그가 교통사고를 당한지 10년만에 맺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십 년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 속에 인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회로에락이 결여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병상에 누워 죽음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림은 삶의 한 부분이란 사실을 깨닫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다.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살벌하게 보이던 필름이 상당히 회화적이란 사실까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는 고통의 기억을 재생하는 (<잊혀진 흔적 속에서>)를 명제로 한 첫 개인전을 열기도 했고, 2001년의 장흥 토탈미술관에서 가진 개인전에서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으로 자연공간을 부유하고 있는 듯한 익명의 군상을 표현하기도 했다. <신화>란 제목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도 그는 작품에 라이트박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필름(筆墨)을 주요매체로 활용했다. 그 작품들에서 그가 기억하고 있는 고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추상적으로 표현했기 때

문에 화면위에서 감지 혹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의 아우라였다.

그러나 엑스선필름은 그의 작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엑스선필름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겪은 신체적 고통과 상처에 대해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꽃다운 소녀시절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평생 인공보조물에 의지하여야 했던 프리다 칼로(Frida Khalo)가 상처 입은 자신의 신체를 그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통사고 직후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아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계기를 만난 것도 이 엑스선필름을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윌트겐의 정원’에서 그의 신체는 없다. 굳이 따지자면 이 필름 속에 기록된 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의사라면 마치 지문을 해독하듯 그 뼈의 구조를 통해 환자를 식별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잘려나간 필름은 그것마저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명을 받아 어렵듯 떠오르는 뼈는 병원에서 의학적인 목적으로 보는 필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그는 엑스선필름을 소재로 활용하되 그것을 잘라 환상적인 화조화나 낙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그에게 작품 속에 나타난 꽃, 식물 등의 형상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훌륭한 소재이기도 했다. 인간의 신체골격과 그 구조를 드러내는 필름의 물성은 차갑고 건조하며 더욱이 죽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꽃은 생명, 충만, 포근함, 따뜻함, 화려함과 맞닿아있으므로 그의 작품 속에는 두 세계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장식성이 내용을 추월한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제작한 작품은 대체로 검은 배경에 창백한 검푸른 빛의 식물이 조명을 받아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연(凄然)한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라이트박스로 빛을 비추지 않았다면 나전칠기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의 정물은 서구에서 정물에 대해 ‘죽은 자연(nature morte)’이라고 말했던 점을 떠올리게 만든다. 화려하게 만개한 꽃을 그린 정물화에서 그 꽃은 당장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만 언젠가 시들고 말 것임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이런 그림은 인생도 그러하니 청춘에 자만하지 말고 죽음이 항상 곁에 있음을 기억하라, 곧 메멘토모리(memento-mori)란 경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한기창의 정물을 단지 아름답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금호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을 계기로 그는 삼성미술관의 아트스펙트럼에 초대되었고, 창동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창동창작스튜디오에 있을 때 엑스선필름으로 작업하고 있는 그를 보고 동료 입주작가들까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필름을 잘라 꽃과 식물을 만드는데 심취해있던 그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스테이플을 이용해 사의적(寫意的) 산수를 그리기도 했으나 이내 필름작업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면서 흑백의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여 LED가 지닌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LED가 구현해낼 수 있는 화려한 원색을 동원한 작품에서 죽음의 그림자는 밀려나는 대신 혼성적인 가상의 정원이 전면으로 부상한 것도 이즈음부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작품에서 두드러진 것은 모조성과 장식성이 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자도를 재해석한 작품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생명을 주제로 한 생태학적 관심의 표현에 주력하여 인체의 뼈를 식물의 형태로 표현하던 그가 자연스럽게 관심의 영역을 풍경으로 확대하면서 모조된 혼성의 공간은 대경산수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에는 그의 신희여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주일동안 제주도도 여행을 갔던 그는 자연이 제공하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고, 제주도립미술관 개관기념전에 출품하면서 그 경험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전환점에 있는 작품이 〈백록담〉으로서 빛의 연출을 절제하는 대신 필름을 잘게 잘라 이어붙이며 호산 분화구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 작품을 비롯하여 산수를 표현한 작품에서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검은색 배경은 사라지고 넓은 회색 여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그가 만들어내고 있는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 산과 산이 이어지며 계곡으로 폭포가 흘러내리는 풍경은 실경이면서 동시에 관념적인 산수라고 할 수 있다. 이 풍경에서 엑스선필름의 정체, 곧 인체를 드러내는 영상은 사라지고 있다. 풍경의 원근과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엑스선의 이미지를 뒤아내었기 때문에 그 영상 자체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풍경을 통해 죽음을 연상하기란 쉽지 않다. 대신에 넓게 트인 공간을 통해 머리속에 그린 또 다른 낙원의 이미지가 화면 위로 부상한다. 그의 풍경에서 인간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그저 무심하게 흐르는 폭포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산, 그리고 고요한 바다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동양화를 전공한 그가 회귀할 곳이 산수화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 산수가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가 교통사고의 트라우마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뼈마디가 그대로 노출된 필름을 조립하여 만든 가상의 꽃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즐거운 공포’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다. 그것은, 아마, 그가 풍경을 더 진전시키면서 숙고할만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